



오늘의 날씨 | 맑음 | 기온 -6℃/4℃

2017년 2월 24일 금요일 (음력 1월 24일)

기독일보

석간

www.christiandaily.co.kr

구독신청 02-722-8165

제 754호



이만열 “3.1운동, 이제 ‘3.1혁명’으로”

‘3.1만세운동과 종교계’ 주제로 3.1운동 100주년 기념 준비 학술심포지엄 열려



이만열 박사

“3.1운동은 3.1 ‘혁명’이다!” 이만열 박사(숙명여대 명예교수)가 3.1운동을 3.1혁명으로 부르자고 제안했다. 23일 태화빌딩 지하강당에서 열린 ‘3.1운동 100주년 기념 준비 학술심포지엄’에서 기조강연을 전한 이 박사는 “한국의 민주운동이 3.1운동을 계기로 확연하게 드러났으며, 그 전과 후를 구분할 수 있는 경계선이 되었다”면서 이렇게 주장했다.

이만열 박사에 따르면, 3.1운동을 지칭하는 용어로서 ‘혁명’이라는 용어는 이미 등장했던 것이라고 한다. 그는 “이미 학술적인 쟁점으로 등장했었는데, 그것은 그 사건을 바라보는 역사적 가치관이 변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하고, “혁명은 그 운동력이 체제를 바꾸었거나 거기에 준하는 것이어야 하는데, 선진들이 이미 3.1혁명이라 부른 적이 있다”면서 “그것은 독립운동적 측면에서는 ‘민족혁명’적 성격을 가졌다고도 했고, 전근대적인 정치체제를 뒤엎고 새로운 정치사회체제를 재래했다는 점에서는 ‘민주혁명’으로 봤다”고 했다.

특히 강경 후 일제는 일체의 집회 결사의 자유를 인정하지 않았고, 포고를 통해 민간에서 무기를 갖지 못하도록 했으며, 몇 차례의 조사를 통해 갖고 있는 무기마저 신고해 몰수해 갔다. 그 때문에 종교계 이외에는 민간이 스스로 집회할 수도 없었고, 이런 상황에서 3.1운동 같은 거족적 민족운동을 조직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다고 한다. 이 박사는 “여기서 종교인들의 역할이 나타날 수 있었다”면서 “3.1운동은 그 발화만으로 본다면, 중앙과 지방을 막론하고 종교계가 연합해 이룩한 거대한 민족운동이라는 것을 부정할 수 없다”고 했다.

이만열 박사는 3.1운동이 일제 강점 초기 생존권조차 박탈당한 한국민이 당시 세계의 한 조류인 민족자결주의의 흐름을 기민하게 활용해 일으킨 민족독립운동이요,

이와 함께 민족이 나라의 주인이 되는 국가를 건설하려는 민주사회 건설운동이기도 했다고 전했다. 그는 이 운동이 비폭력의 방법으로 동양 평화, 나아가서는 세계 평화를 이룩하려는 세계사적 목표

와도 연결되어 있다고 했다.

이어 이 박사는 3.1운동에서 나타난 핵심적인 정신이 우선 민족독립과 인간해방을 위한 자주(자유)정신을 들 수 있는데, 구체적으로는 정치, 사상, 신앙, 문화적 자유를 의미했다면서 “이는 곧 ‘민족의 자주적인 존엄을 위한 정치적 자유’와 ‘민족의 생존권을 위한 경제적 독립’, ‘언론 집회 결사를 위한 사상적 자유’ ‘민족문화 창달을 위한 자유’를 의미한다”고 했다.

또 이 박사는 “3.1운동에서 나타난 ‘민주정신’이 백성이 주인되는 민주국가의 건설로 구체화 되었다”고 말하고, “군국주의 일제가 이 땅에서 ‘식민지근대화’를 앞세워 자유와 창의성을 말살하고 있는 동안에 한국민은 망명지의 어려운 여건 하에서 민주적으로 정부를 조직하고 민주 훈련을 실험해 갔다”면서 “한국 민주화의 여정이 이렇게 깊었던 것은 그 뒤 서구화로 포장된 이승만의 위장민주주의와 일제 군국주의 아류인 박정희의 유신민주주의를 극복하는 데에 결정적 힘이 됐다”고 주장했다.

이 박사는 “이민족 결계(箝制)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독립정신은 자주정신의 발로인데, 일제 강점기 끊임없는 항일 투쟁을 벌일 수 있었던 것은 이 자주정신 때문”이라 말하고, “(결국) 자주민은 자기 스스로 원하는 정부를 만들어 냈으며, 민주적이고 다수의 합의에 의해 이뤄지는 공화제는 3.1운동의 혁명적 열정을 바탕으로 임시정부 운동을 통해 구체화 됐다”고 전했다. 그는 “1919년부터 시작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민주공화제를 실험할 수 있었던 것은 백성이 나라의 주인이 되도록 하겠다는 3.1운동의 결정적 산물”이라며

“그런 의미에서 3.1운동은 선진들이 이미 사용해 왔던 ‘3.1혁명’이라는 용어로 대체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3.1만세운동과 종교계’란 주제로 열린 학술심포지엄에서는 이만열 박사의 기조강연 외에도 ‘무단통치기 조선총독부의 종교정책과 한국 종교계의 동향’(김승태) “3.1만세운동과 천도교”(조규태) “3.1만세운동과 불교”(김광식) “3.1만세운동과 기독교”(이덕주)란 주제로 발표가 이뤄졌다.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이사장 윤경로) 주최로 열린 행사는 한국기독교역사학회가 주관했으며, 문화체육관광부와 기독교대한감리회가 공동 후원했다.

조은식 기자



“역시 비와이!”

비와이가 22일 진행된 Mnet 가운차트 뮤직 어워드에서 올해의 발견상 힙합분문에 선정됐다. 그는 이 자리에서 수상소감으로 요한복음 말씀을 전했다.

Mnet 영상 캡처

이혜훈 의원 “하나님 대신 사람 두려워하다 동성애에 무너지다”

예장합동, ‘기후 환경 대책 및 동성애 조장 반대’ 세미나 개최

예장합동 사회부가 지방을 순회하면서 “기후 환경 대책, 동성애 조장 반대”를 위한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다. 첫날인 23일에는 오펜교회(담임 김은호 목사)에서 서울·수도권 권역 세미나가 열렸다. 특별히 ‘동성애’를 주제로 이혜훈 의원(바른정당)이 강연을 전했다.

이혜훈 의원은 “하나님 대신 사람 두려워하다 동성애에 무너지다”란 주제로 발표했다. 그는 “국내 에이즈 환자들에 대한 치료는 전역 국가에서 지원하고 있는데, 조 단위의 전문학적 금액이 사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금 에이즈 치료에 사용되는 국가 재정의 1/10만 복지에 사용했어도, ‘송과 세모너 자살’ 같은 비극은 생기지 않았을 것”이라 했다.

이 의원은 “미국과 영국을 비롯한 전

세계 보건당국이 동성애를 에이즈의 주원인으로 발표하고 있지만, 우리는 명명백백한 이 의학적 결과를 발표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국민 건강을 지켜야 할 보건복지부는 에이즈와 동성애의 연결성에 대한 통계를 ‘인권보도준칙 때문’이라는 핑계로 발표하지 않고, 질병 예방에 앞장서야 할 질병관리본부는 ‘에이즈는 동성애와 관련이 없다’는 내용의 에이즈 길라잡이를 배포하고 있는 실정”이라 지적했다.

특히 이 의원은 “지금 일반 국민들과 반대로 청소년들 61%가 동성애를 찬성하고 있는데, 이는 영화나 드라마, 가요 등 각종 미디어들의 영향이 크다”고 했다. 최근 개봉한 영화 ‘아가씨’가 500만을 동원했는데, 그는 “(아가씨는) 동성애 영화 아니냐”면서 “이런 대중매체들이 동성애

가 지극히 정상적이고 아름답다는 잘못된 인식을 갖게 만든다”고 했다.

실제로 청소년들은 지금 동성애에 노출되기 쉬운 환경에 살고 있다. 이 의원은 ‘바뎀 알바’라는 것을 이야기 했는데, “이는 동성애에서 여성 역할을 하는 ‘바뎀’에서 유래된 말로, 가출 청소년이나 돈이 필요한 청소년들이 3만 5천 원에 이를 하고 있다”고 고발했다.

이 의원은 “동성애는 처음 원하지 않는 상태에서 시작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본인이 가해자가 되는 특성이 있어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에이즈 감염자들 가운데 15~19세는 20.6%, 20~24세는 15%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면서 “이를 보면 동성애자들 수는 훨씬 많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했다.

국회의원인 그는 “동성애 차별금지법이 정부가 3번이나 여야로 바뀔 때마다 정부 입법으로 상정된 이유는, 반기문 전 UN 사무총장이 5차례나 공식 서한을 보내면서 압박했기 때문”이라 지적하고, “반 전

사무총장은 당시 제 모국 대한민국에서 아직도 동성애가 범죄가 된다는 사실이 너무 걱정된다고도 발언했었다”면서 “하나님 대신 사람을 두려워하다가 동성애에 무너질 수 있음을 절대 잊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혜훈 의원 외에도 세미나에서는 “동성애와 차별금지법안”(김원평) “세계 속의 동성애 추세와 한국교회 대응방안”(이용희) 등 동성애 주제 강연과 “기후가 변하고 있다”(권원태) “개혁신주의 관점에서 본 생태계 위기와 그리스도인의 책임”(송준인) 등의 기후환경대책 주제 강연이 계속된다.

세미나는 오펜교회를 시작으로 영남 권역은 오는 3월 30일 남도교회(담임 박세광 목사)에서, 호남 권역은 오는 4월 27일 겨자씨교회(담임 나학수 목사)에서, 충청·중부지역은 오는 4월 28일 태평중앙교회(담임 조문찬 목사)에서 열릴 예정이다.

박용국 기자

선교의 ‘황금어장’ 군선교, 지난해 세례장병 약 17만 명

전체 입대인원 25만 가운데 67% 사역 이래 수세인원 415만 명

군선교는 선교의 황금어장이 분명하다. 지난 2016년 한 해 세례/침례를 받은 군장병은 약 17만 명 가까이 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전체 입대인원 약 25만 명을 기준으로 67% 가량의 결실을 맺은 것이다.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이사장 박선희 목사, MEAK)가 23일 여전도회관에서 제46차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사역현

황을 공개했다. 정확하게는 16만 9,671명의 장병들이 세례/침례를 받았으며, 이는 전년도 대비 진중수세인원 1만 7,433명이 증가한 것이다. MEAK는 이 가운데 9만 3,383명의 명단을 수집해 2만 6,638명을 교회로 연결 시켜줬다.

육·해·공군 통계를 나눠 살펴보면, 육군훈련소 수세인원은 8만 1,785명으로, 지난해에 비해 세례/침례를 받은 인원

이 7,234명 늘어났으며, 최초 8만 명 이상 세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1군, 2작사, 3군, 육직인원이 증가했으며, 비록 육군 26세 부대가 증가하고 13개 부대가 감소했지만, 전체적으로 육군 인원이 많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해군에서는 해군교육사와 해병대교육훈련단 수세인원이 증가했으며, 해군사관학교는 감소했다. 공군은 공군교육사와

공사 각각 감소하고 동일했다.

MEAK는 4,386교회 교회를 가운데 2,470교회에 세례/침례를 받은 군장병들을 연결해 줬으며, 연결 누계 인원은 모두 155만 5,597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MEAK는 총회 사업계획을 통해 ▶육군훈련소 연무대교회 새예배당 건축 사업 ▶비전2020 실천운동사역 강화 ▶선사인(선한사마리아인) 사역 계속 전개 ▶

한국교회 청년사역(YES Mission) 전문화와 체계화 ▶SNS사역 개발 및 극대화(모바일 사역전개) ▶한국교회 연합사역 내실화 ▶군선교정책 개발 및 매뉴얼화 등의 기본방향을 결정했다.

특히 MEAK는 ▶한국교회 군목과 송 60주년기념사업의 일환으로 육군훈련소 연무대군교회 새예배당 건축 ▶비전2020실천운동사역 꾸준한 실천과 내실화(전도, 세례/침례, 양육, 결연) ▶군선교교역자운영 제도 완전 개선(정예화, 전문

화, 체계화) ▶후원회원 확보에 집중: 정가후원, 사업후원 ▶특별부설기관 사역강화(한국군선교신학회, 한국군선교교육원, 한국군선교연구소, 한국군선교심리교회, 군선교신문사) 등의 핵심사역을 결정하고 힘차게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군 복음화에 힘써 온 MEAK는 사역을 시작한 이후 현재까지 415만 4,451명(총누계)에게 세례/침례를 준 것으로 파악됐다.

홍은혜 기자

어릴적부터 이루고 싶었던 꿈 수상소감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는 것

역시 비와이는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다.

22일 서울 잠실 실내체육관에서 열린 ‘2017 가운차트 K-POP 어워드’에서 올해의 발견상 힙합분문에 선정된 비와이(25-

본명 이병운)가 수상소감 대신 성경 말씀을 전하며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렸다.

이날 수상대에 오른 비와이는 먼저 지난해 몇 차례 수상식 때 보여줬던 마냥

들뜨고 신나했던 자신의 모습을 전한 뒤 “오늘은 뭔가 이 ‘가운차트’ 시상식을 이전과 달리 들뜬 마음보다는 차분한 마음가짐으로 기다려왔다”며 “어릴 적부터 음악을 하고 싶다는 꿈을 가지고 어릴 때부터 꿈꿨던 게 있었다. 그걸 오늘 전 해보려고 한다. 그래서 그 꿈을 하나 이루고 내려가려고 한다”고 말을 이어갔다.

이어 작심 한듯 비와이는 “그게 뭐냐면 시상식에서 제가 진리라고 믿고 있는 하

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싶었다”면서 “많은 분들이 제가 하는 음악과 신념을 많이 비슷하지만 이제 저의 멋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 전 이걸 말하려고 한다”며 요한복음의 한 구절을 읊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는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요1:1-3)

말씀을 전한 비와이는 “저에게 이 구절이 큰 감동이었다”며 “저는 (1인) 기획사이기 때문에 사장님도 없고 이 자리에서 감사드릴 분은 하나님뿐이다”고 모든 영광을 돌린 뒤 “진심으로 저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들어오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이 자리에 와주신 분들 에게도 감사드

린다”고 소감을 마무리 했다.

한편, 비와이의 소감을 들은 누리꾼들은 “너무 멋있다.....진짜 존경스럽다”, “아, 진짜 본 받아야겠다”, “진짜 멋있다. 저기 앉아있는 다른 기독교 연예인들 부끄러웠을듯 하다”

등 세상 무대에서 말씀을 선포하고 당당히 하나님께 감사드릴 비와이의 모습에 찬사를 보냈다.

최누리 기자

“새 빛으로 새로운 세상을 볼 당신에게”

각막기증 온라인 캠페인 EYE PROMISE YOU 출범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가 지난 20일 월요일 장기기증 인식개선 및 각막기증 활성화를 위한 캠페인 ‘EYE PROMISE YOU’를 출범시켰다. ‘EYE PROMISE YOU’는 ‘새로운 세상을 볼 당신에게 하는 약속’이라는 주제로 페이스북·인스타그램 등 SNS를 통해 릴레이로 진행되며 각막이식만을 애타게 기다리는 시각장애 환우들에게 희망을 전달할 예정이다.

본 캠페인은 20일을 시작으로 3개월간 진행되며 박원순 서울시장을 비롯해 배우 채정안, 최지우, 공형진, 김성령, 이일화 가수 다이나믹듀오, 김희철 등 유명인 50여명이 참여한다. 캠페인 참여자들은 본인의 SNS와 EYE PROMISE YOU 공식

페이스북 계정에 본인의 눈 사진과 시각장애 환우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사진 그리고 희망의 메시지를 함께 작성해 업로드하게 되며 이를 통해 국민들에게 각막기증 서약을 독려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각막이식인 서지원 씨와 각막이식인 박진숙(55) 씨의 아들 원종건(25) 씨도 캠페인에 참여한다. 왼쪽 눈으로만 세상을 봐야했던 서지원(24) 씨는 지난 2010년 2월, 기적적으로 각막이식 수술을 받게 됐다. 서 씨에게 새 빛을 선물한 이는 십년 동안 희귀병을 앓다가 하늘나라로 떠난 동갑내기 남학생 이 모균. 서 씨는 이식수술을 받은 후 기증인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지금까지 장기기증의

필요성에 대해 알리는 일에 앞장서고 있다. 서 씨는 “더 많은 시각장애 환우들이 하루빨리 새 빛으로 세상을 볼 수 있다면 좋겠다”며 캠페인 참여 소감을 전해 주었다.

한편 각막이식인 박진숙(55) 씨의 아들 원종건(25) 씨도 캠페인에 참여할 예정이다. 청각장애와 시각장애를 안고 아들 원 씨와 단둘이 살아가던 박 씨. 폐지와 공병을 모아 마련한 돈과 기초생활수급비로 어렵게 가게를 꾸려가던 박 씨는 지난 2005년, 본부와 한 방송의 도움을 통해 기적적으로 각막이식 수술을 받게 됐다. 박 씨는 기증인과 본부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결손가정의 결연아동 후원에 앞장서

왔고 원 씨는 지난 2012년, 대학생이 되자마자 본부에 장기기증을 서약했다.

원 씨는 “기적적으로 각막이식 수술을 받은 어머니를 보며 저 역시 먼 훗날 시각장애 환우들을 위해 생명 나눔을 실천하고 떠나겠다는 다짐을 했다”며 “EYE PROMISE YOU 캠페인을 통해 더 많은 시각장애 환우들이 희망을 선물받기를 바란다”고 캠페인 참여 소감을 전해 주었다.

본부 박진탁 이사장은 “2017년 한해는 ‘EYE PROMISE YOU’ 캠페인을 통해 사랑을 약속하는 한해가 되길 바란다”면서 “각막기증 서약이라는 당신의 작은 사랑이 누군가에게는 큰 희망이 될 것이다. 많은 관심과 힘을 보내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문의 :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 홍보팀 02-363-2114(내선5) **홍은혜 기자**

“오늘날 대한민국의 고난, 손정도의 ‘결레정신’이 해답”

애국지사 손정도 목사 사 86주기 추모예배

21일 오전 11시 한국기독교연합회관에서는 ‘애국지사 손정도가념사업회’ 주최로 “제12회 정기총회 및 애국지사 손정도 목사 86주기 추모예배”가 열렸다.

“하나님 사랑 나라 사랑”이란 주제로 열린 행사에서는 먼저 송기성 목사(정동제일교회, 공동대표)의 사회로 추모예배가 열렸다. 최광혁 장로(기감장로회전국연합회장, 공동대표)가 기도하고, 전용재 감독(기감 직전 감독회장, 대표회장)이 설교했으며, 민 승 목사(김상옥기념사업회장, 공동대표)가 축도했다.

2부 제86주기 기념식에서는 전용재 감독이 인사말을 전하고, 정세균 국회의장과 박유철 광복회장, 권영해 전 국방장관, 김영종 종로구청장, 구남신 국가보훈처 서울북부지청장, 김기흥 해병선교회장 등이 추모사를 했다. 또 손명원 박사(지사장손, 공동대표)가 유족대표 인사를 하고, 본부장 유귀순 목사가 내빈소개 및 광고를 했다. 이후 총회가 있었다.

한편 손정도 목사의 유족 손명원 박사는 인사말을 통해 “할아버지는 ‘하나님

사랑이 나라사랑, 하나님 사랑이 민족사랑’이란 말을 몸소 실천하기 위해 목회를 그만두고 독립운동가가 되었던 분”이라 밝히고, “그러나 무슨 직분을 맡든 그는 목사 타이틀을 꼭 지키고 가셨다”고 했다.

손 박사는 특히 손정도 목사가 가훈으로 ‘결레정신’을 강조했다 밝히고, “더러운 곳을 결레로 깨끗하게 닦고, 평소에는 보이지 않는 곳에 있다가 필요할 때만 나와 쓴다는 정신”이라며 “보이지 않아도 내 사명이고 내 주인, 내 국민이 원하는 것이라면 그 일을 하는 것이 결레정신”이라 했다.

이어 손 박사는 “(손정도 목사가) 우리끼리 나라는 잊어도 열심히 일하고 서로 사랑하고 겸손 등의 가치를 가르치시기 위해 결레정신을 가훈으로 두셨다”면서 “독립 성공여부는 동포끼리 겸손하고 사랑할 때 가능하다 생각하셨던 분”이라 이야기 했다. 덧붙여 “오늘 대한민국의 고난도 이 결레정신 철학이 해답 아닐까 싶다”고 했다. **조은식 기자**



손정도 목사

한동대 추곡 이야기, 추운 겨울.. 농촌에 따뜻한 활력을 불어넣어

울겨울 계절학기가 막 끝난 지난 1월 11일 강원도 춘천시 북산면 추곡에서 ‘2017년 겨울 추곡이야기’가 시작됐다. 1월 11일부터 20일까지 추곡교회에서 속박하며 20여 명의 한동대 학생들이 농촌 봉사 활동에 참여했다. 주요 활동은 아이들 공부방 활동, 농촌 일손 돕기, 장작 나르기, 노인정 봉사활동으로 구성됐다.

지난 2002년, 프레이즈 전도여행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온 ‘추곡이야기’는 매년 여름과 겨울 20~40여 명의 학생이 참여해, 농촌 마을에 일손을 돕고 도움이 필요한 곳에 도움을 주는 활동을 지금까지 해오고 있다. 여름에는 주로 농촌 일과 수확을 돕고 겨울에는 주로 장작을 나르거나 수확이 끝난 후에 뒷정리를 돕고 있다.

이번 추곡 디렉터를 맡은 11학년 상담심리사회복지학부 안형국 학생은 “추곡 이야기는 한동대에서 가르치는 봉사과 사랑을 필요한 곳에 나눌 수 있는 의미 있는 활동이다”라고 말했다. 또 “농촌 봉사 활동을 통해서 주민분들의 일손을 돕는

것뿐만 아니라, 학생들끼리 자급자족하고 서로 일들을 도우며 나눔과 섬김을 통해 성장할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추곡 이야기 활동을 진행하면서 학생들은 처음에는 어색하고 다가가는데 어려움을 겪었지만, 서로 친해지고 알아가면서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법을 배웠고 그것을 기반 삼아, 농촌봉사활동과 공부방 활동에도 열심히 하며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었다. 상담심리 사회복지학부 14학년 한혜지 학생은 “공부방을 진행하면서 같이 공부할 하는 것뿐만 아니라, 대학생들과 같이 시간을 보내면서 좋은 영향을 받는 것 같아 매우 좋았다”고 밝혔다. 또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면서 아이들의 생각을 들어줄 수 있고 또 자기 생각을 나누어 줄 수 있어서 매우 뜻깊은 시간이었다”라고 전했다.

또한, 도움을 받은 주민분들과 교회 성도분들께서는 혼자서 일하면 며칠이 걸릴 일들을 단시간에 끝낼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학생들에게도 감사하다며 고마움을 표했다. 학생들이 주민분들 덕을 방문하



학생들이 노인정을 방문해 마사지와 팩을 해드리고 점심때 떡만두국을 대접해 드렸다.

었는데, 간식을 내어주시고 채워주시기도 하면서 많은 얘기도 나눌 수 있어서 좋은 시간이었다고 이야기했다.

학생들은 추곡에서 나눈 사랑과 섬김

한동대 제공을 마음에 새기며 서로의 집으로 돌아갔으며, 다음 여름 추곡 인원들도 선출해 여름에 있을 추곡을 기쁨으로 준비하기로 했다. **조은식 기자**



행사가 열리고 있는 기독교연합회관

조은식 기자

My KIDS

기쁨을 나누면 복이 됩니다. 나와 같은 아이들 Facebook에 알려주세요!

동아리활동 확인하기 (나도 참여하기)

My Kids 찾기

경매인 소개 및 문의하기

Facebook 이벤트 보기

월드비전

지구촌 어딘가에 있을 나와 꼭 닮은 아동을 찾아보세요! 그 아이의 꿈과 희망을 나의 손 끝으로 지켜줄 수 있습니다.

MY KIDS 캠페인 참여방법!

- 검색창에 “월드비전 마이키즈”를 검색해주세요.
- 모바일 앱 mykids.wv.or.kr로 접속해주세요.

3인원 후원물 허시먼

- 월드비전 Family Card와 함께 아동 정보가 담긴 카드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 아동과 전지를 교류하여 선물을 보내거나 아동이 사는 지역을 방문하여 아동의 변화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연 1회 아동인력발달 보고서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후원금을 통한 변화

- 월 3인원의 후원금은 지역개발사업을 통해 아동의 영양, 보건, 학습, 교육 및 이들에 혜택을 줍니다.
- 아동후원은 한 아이의 밝은 미래를 열어 꿈을 키우고 한 마을의 희망이 됩니다.

홈페이지 www.worldvision.or.kr 후원 문의 및 신청 02-2078-7000

[서경석의 세상읽기] 왜 사람들이 태극기집회에 참석해야 하는가?

안녕하십니까? 서경석목사입니다. 저는 지금 나라를 사랑하는 시민이라면 젊은이든 늙은이든 전부 태극기집회에 나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기독교인은 꼭 나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생각에서 저는 부락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서경석 목사(선진화 시민행동 상임대표, 기독교사회책임 공동대표나눔기쁨 상임대표)

2시 광화문 청계광장에서 탄핵반대 집회를 주도해 왔습니다. 이에 이 글을 읽는 여러분께도 꼭 태극기집회에 나와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처음 최순실사태가 터졌을 때 저는 언론이 하는 말이 전부 사실인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크게 잘못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동안 대통령이 소름이 잘 안 되었는데 알고 보니 최순실같은 사람에게 영혼을 빼앗겨서 그랬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박근혜대통령은 하루빨리 물러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은 하야에 준하는 조치를 취하고 이선후퇴하라”는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의 입장에 동의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보아도 하야/탄핵 사유가 찾아지지 않았습다. 그리고 언론이 거짓보도를 한 점들이 수없이 드러났습니다. 약 70건에 달하는 추측보도가 전부 사실이 아니었고 언론이 경쟁적으로 허위 선동보도를 한 것이었습니다. 얼마 전부터는 국정농단이 대표적인 증거물인 최순실의 태블릿PC가 JTBC 손석희 사장에 의한 조작물이었음이 명확하게 드러났습니다. 이 태블릿PC가 조작된 것이라는 증거는 전문가가 아닌 저도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우선 최순실에게 한 번도 증거물인 태블릿PC를 보여준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누가 사용료를 냈는지만 확인해도, 기지극에 조희만 해도, 카복방만 조사해도 누가 주인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이런 조사를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제아무리 JTBC앞에 가서 규탄집회를 하고 대검찰청 앞에 가서 두 번이나 5백명 이상의 시민들이 데모를 해도 검찰은 일체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검찰청 앞 항의집회를 보도하는 언론도 하나도 없었습니다. 나중에는 시민들이

방송회관에 있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효종교수)앞에 가서 한달이나 농성을 해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JTBC의 조작에 대해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박효종교수는 보수시민단체의 지도자로 언론도 많이 타고 존경받던 사람이었는데 이번 일로 완전히 추락했습니다. 그랬다가 한 달이 지난 지금에야 심의를 시작했습니다. 대한민국 어디에도 JTBC의 최순실 태블릿PC 조작의혹을 규명하는 곳이 없다는 것은 너무도 기가 막힙니다. 과연 이 위원회가 공정하게 규명할지 다 같이 지켜보아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언론은 촛불집회는 침소봉대하고 태극기집회는 제대로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근자에 와서야 태극기집회의 인과가 촛불집회를 몇 배나 능가하니가 할 수 없이 보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보도태도는 참을 수 없을 정도로 편파적입니다. 지금도 언론은 태극기집회를 맞불집회, 천박집회라고 표현합니다. 박근혜를 맹목적으로 지지하는 사람만 태극기집회에 참석하는 것처럼 왜곡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종통을 위시한 모든 언론이 한결같이 탄핵이 정당하다고 주장합니다. 객관성, 공정성이 전혀 없습니다. 저는 조선일보 독자인데 아침에 조선일보를 읽을 때마다 하루에 두시간씩 두통을 앓았습니다.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조선일보 구독을 끊었는데 저도 그 대열에 합류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 최순실사태는 조선일보, JTBC 등 언론의 亂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언론에 대한 신뢰가 지금처럼 떨어진 적이 없습니다. 조선일보도 좌파에게 영혼을 팔아넘긴 신문입니다. 언론이 영혼을 팔아먹으면 나라가 어떻게 되는가를 지금의 나라 현실이 너무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의 태극기집회는 대통령이 탄핵되어야 한다는 언론의 주장이 얼마나 잘못되었나를 보여주는, 언론을 향한 국민의 저항행동입니다.

최근에는 고영태 녹음파일의 증거물로 제출되면서 이번 사태가 최순실 게이트가 아니라 고영태 게이트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점점 더 진실이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최순실게이트는 너무도 광우병 촛불시위와 유사합니다. 그 때에도 MBC가 미국산 소를 먹으면 뇌에 구멍이 송송 뚫린다는 거짓말을 보도해서 촛불시위가 시작되었는데 이번 촛불시위도 하나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태는 검찰의 亂이기도 합니다. 검찰은 이번에 촛불광풍이 불어대니까 촛불쪽으로 줄을 서기로 결심하고 확실하게 대통령을 탄핵시키는 행동을 했습니다. 이번 검찰의 공소장은 기가 막힙니다. 대통령에게 반론권도 주지 않고 조사도 하지 않고 기소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형사소송법 위반입니다. 국회의 탄핵소추도 기가 막힙니다. 검찰의 공소장과 언론보도를 접부한 것이 전부입니다. 이 세상에 이런 탄핵소추는 없습니다. 그런데 검찰의 공소장에 대해 청와대측 변호사가 반론을 제기했습니다. 그 내용을 읽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무리 보아도 대통령의 잘못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문제점으로 고발된 미르, K스포츠재단도 정상적인 국정운영의 일환이었다는 청와대측의 설명이 충분히 납득되었습니다. 대통령은 문화용성을 주요 국정과제로 설정하고 기업들에게 문화용성을 위해 투자와 후원을 꾸준히 요청했고 기업의 후원을 받아 공익재단을 만들었습니다. 이런 일은 전두환,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등 역대 정권이 다 한 일입니다. 최순실과의 관계에 있어서 공사구분이 명확치 않았던 점은 분명히 대통령이 비난받을 일이지만 누구나 다 가까운 지인이 있기 마련이고 지인의 조언을 듣기 마련인 점을 생각하면 이점이 탄핵당할 사유라고는 전혀 생각되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특검은 더욱 편파적입니다. 이번 박영수 특검은 여야가 공동으로 임명한 균형잡힌 특검이 아니라 야당이 일방적으로 만든 편향적인 기구입니다. 그러다 보니 문화체육부의 블랙리스트까지 문제를 삼았습니다. 사실은 블랙리스트는 마땅히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국가정책성이 의심되는 문화활동은 지원해서는 안 됩니다. 뿐만 아니라 진보적 문화활동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좌우 균형잡힌 지원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를 위해 문화계 인사에 대한 정부의 평가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도 헌법위반이라며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문체부 고위관료들을 구속시켰습니다. 나중에는 삼성의 이재용부회장까지 구속시켰습니다. 이재용부회장이 도주의 우려가 있을 턱이 없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을 턱이 없습니다. 대통령을 뇌물죄로 엮기 위해 이재용 부회장을 희생 제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특검에 대한 애국시민의 분노가 하늘

을 찌르고 있습니다.

또 이번 사태는 종북좌파세력의 亂입니다. 소위 촛불민심이라는 것은 다름 아닌 종북좌파세력의 생각입니다. 이번 촛불집회는 민주노총, 전교조, 통합진보당 등 종북좌파 세력이 주도했습니다. 이들은 과거 맥아더동상 철거집회를 주도했던 세력이고, 한미FTA 반대투쟁, 광우병촛불집회, 제주도해군기지 반대투쟁 등을 주도해 온 세력입니다. 지난 십여년동안 기회가 있을 때마다 나라를 흔들어 온 반대한민국 세력입니다. 이 세력이 JTBC가 조작한 최순실 태블릿 PC에 의한 국정농단 사태를 그냥 지나칠 리가 없습니다. 당장 민중총궐기 투쟁본부를 만들어 촛불시위를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언론의 왜곡 선동에 놀란 국민이 가세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촛불민심이란 다름 아닌 종북좌파들의 선전선동이었습니다. 이석기를 석방하라, 사회주의가 답이다 라는 구호가 촛불집회에서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대통령이 이선후퇴를 하고 국회가 총리를 정하면 임명하겠다고 해도 야당은 조금도 유연한 입장을 보이지 못했습니다. 촛불민심이라고 일컬어지는 종북좌파의 초강경 입장을 눈치를 보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일반국민도 촛불민심이란 다름 아닌 종북좌파들의 생각임을 알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일반 시민은 더 이상 촛불집회에 나오지 않습니다. 이것이 지금의 상황입니다. 앞으로 촛불세력이 태극기세력을 능가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기가 막히는 것을 새누리당 국회의원들이 했습니다. 대통령 탄핵사유가 되는지를 규명하는 공청회조차 한 번도 하지 않고 촛불광풍 앞에서 무릎을 꿇고 탄핵에 찬성했습니다. 하대경 의원은 “조기탄핵을 하지 않으면 국민에게 밝혀죽는다”고 했습니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다 박근혜대통령의 도움으로 국회의원이 된 사람들인데 객관적 규명도 없이 검찰의 엉터리 기소장에 근거해서 탄핵을 결의했으니 이런 기막힌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새누리당 국회의원들은 사회에서 출세할 만큼 다 하고는 출세를 더하고 싶어 새누리당에 줄을 대어 국회의원이 된 사람들입니다. 이런 웰빙 국회의원들이 종북좌파와 맞설 뱃장이 어디 있겠습니까? 김무성, 유승민, 하태경 등 겉쟁이, 기회주의 의원들은 촛불

광풍 앞에서 무릎을 꿇고 대통령을 탄핵하는 치명적인 과오를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새누리당에서 떨어져 나가 바른정당을 만들었습니다. 그렇지만 <바른정당>은 보수세력으로부터 완전히 버림받고 아무런 희망이 없는 세력이 되었습니다.

새누리당 행보도 가관입니다. 새누리당 지도부는 새누리당의 정체성은 생각하지도 않고 인명진목사를 비대위원장으로 모셔왔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새누리당은 보수정당의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김문수전지사가 태극기 세력의 일원이 되면서 새누리당에 변화를 가져다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황교안대통령 권한대행이 자유한국당(새누리당)의 대선 후보가 되고 인명진목사가 당을 떠나야 비로소 당이 정상궤도에 들어설 것입니다.

지금 새한국국민운동은 자유한국당(새누리당) 당원가입운동을 열심히 벌이고 있습니다. 애국세력이 새누리당의 주인이 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유한국당(새누리당)을 제대로 개혁하지 않으면 보수의 미래가 없다는 자각 때문입니다. 이제는 웰빙정당을 싸움닭 정당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그리고 국회의원 중심정당을 당원중심정당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이번 기회에 당원가입운동을 통해 자유한국당(새누리당)을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합니다. 그래야 자유한국당(새누리당)이 지금의 유약함을 극복하고 종북좌파와 싸우는 싸움닭 정당, 통일을 실현할 수 있는 정당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제가 처음 서울역에서 대통령 하야반대 집회를 시작한 것은 11월 10일입니다. 저는 그때 “매맛을 각오로 대통령 하야반대 집회를 개최합니다”라고 사람들에게 알렸습니다. 그래서 처음 모인 숫자가 2천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숫자가 지금에 와서는 수십만명으로 늘어났고 촛불집회의 숫자를 몇배나 능가하게 되었습니다. 기독교인들도 태극기집회에 쏟아져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엄청난 태극기의 바다를 만들 수 있게 되었나? 그 이유는 첫째로 아무리 해도 대통령의 탄핵사유를 발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언론이 선동한 내용들은 다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최순실 태블릿PC의 조작이 사실로 드러나

면 지금의 고영태 녹음파일의 충격보다 더 큰 충격이 몰아질 것입니다. 그리고 원로법조인들의 성명서가 지직한 바와 같이 탄핵절차도 위법임이 드러났습니다. 두 번째로는 소위 촛불민심이라는 것이 사실은 종북좌파세력의 입장에 불과했음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을 처단하기 위한 단두대까지 만들고 이석기 석방을 외치는 등 촛불세력의 모습을 보면서 보통시민들은 경악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탄핵이 인용되면 두달 내로 대통령선거를 치러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좌파정권이 들어서게 되고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가 심각한 위기에 봉착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세 번째 이유가 가장 중요합니다. 대통령 후보로 가장 유력한 문재인씨는 지난 대선에서 국가보안법 폐지, 북한인권법 반대, 남북연방제지지, 북한 주적(主敵) 반대를 주장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문재인씨가 대통령이 되면 적화(赤化)될 것을 걱정한 60, 70, 80대가 박근혜후보에게 물표를 던져 문재인씨는 “절대로 질 수 없는 선거에서 패배”하였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 북한은 젊은 김정은이 수령이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장성택을 처형하고, 극도의 공포정치를 행하고, 5차 핵실험을 했습니다. 최근에는 이북형 김정은을 독살했습니다. 이러한 김정은에게 전 세계가 잔치리를 치고 있습니다. 한국인들도 이제는 북한이 무너지는 길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문재인씨도 북한을 보는 입장이 달라지지 않았을까? 그런데 문재인씨 입장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새누리당을 “종북놈들이나 하는 짓질이 정당”이라고 비판함으로써 본인이 종북좌파의 편에 서 있음을 분명하게 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되면 제일 먼저 북한을 방문하고 개성공단을 즉각 재개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드배치도 반대합니다. 이 입장은 분명한 북핵용인의 입장입니다. 이런 문재인씨가 대통령이 되면 미군이 한반도에서 철수할 가능성이 압도적으로 높아집니다. 사드는 기본적으로 주한미군을 보호하기 위해 미국이 자기 예산으로 배치하는 무기입니다. 그런데 사드 배치를 하지 못해서 주한미군을 보호하지 못하면 미군은 끝이나 오까나 우를 발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언론이 선동한 내용들은 다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최순실 태블릿PC의 조작이 사실로 드러나면 문재인씨는 적화(赤化)될

우정사업본부
KOREA POST

우체국 예금에서 우리 모두를 위한
미래의 꿈을 함께 하겠습니다.

똑똑한 금융

우체국으로 시작하자!

더 스마트해진
우체국 예금

